거짓말·실수·착각, 그리고 괴물 퇴치의 연대기

근대 괴물 사기극

이산화 지음, 최재훈 그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이나 일본 영화 '고질라'처럼 불가사의한 '괴물'이라는 존재는 오랫동안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의 모티브가 되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왔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화나 전설 속 괴물들과 더불어 역사에서 끊임없이 등장한 '가짜 괴물들'은 인류의 끝없는 탐욕을 양식 삼아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도 여전히 힘을 발휘해왔고 때론 과학이 그 놀이터를 제공하기도 했다. "과학은 기존의 상식에 뿌리박혀 있던 괴물을 퇴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자리매김했지만, 동시에 필요에 따라 상식 밖의 괴물을 만들어 내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전혀 다른 열두 세계' 등을 펴낸 SF 작가 이산화의 '근대 괴물 사기극'은 거짓말과 실수, 착각이 만들어낸 괴물들의 면면을 살피고, 가짜의 정체가 밝혀지는 과정을 철저한 자료를 근거 삼아 써내려간 '괴물 퇴치의 연대기'다.

'신비동물원', '미지의 동물을 찾아서' 등을 읽으며 괴물 이야기에 빠져들었던 '어린이' 이산하는 작가가 된 후에도 관심을 이어갔고 4년간의 자료 수집과 집필 기간을 거쳐 이 책을 펴냈다.

저자는 일곱 개나 되는 뱀의 머리,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길고 구불구불한 몸통을 가진 '히드라'가 가짜라는 사실을 밝혀낸 과학자 칼 린나이우스(칼 폰 린네)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해 모두 29종의 가짜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더불어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고, 왜 그런 괴물을 믿었는지 등에 대해 사회, 역사, 문화적 맥락까지 짚으며 괴물의 탄생이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 과학의 헤게모니와 역사 이데올로기까지 얽힌 문제임을 이야기한다.

책을 읽다 보면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채 무분별하게 확산되며 공동체를 파괴해 버리는 '가짜뉴스'에서 보듯, '가짜 괴물'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끼게 돼 서글퍼진다.

1700년대의 괴물들은 신화나 전설 속 존재가 아닌, '과학적인' 설득력을 갖춘 존재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땅굴을 파고 살며 뱀을 잡아먹는다고 알려진 동물인간, 황소의 뿔과 박쥐의 날개, 두 종류의 꼬리를 가진 존재로 프랑스혁명 직전의 파리를 강타한 파과 호수의 괴물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혁명이 가져온 호황과 과학의 발전, 신문이 모든 시민을 위한 소식통으로 발돋움하던 1800년대에는 세상을 화려하게 속여 넘긴 스타괴물들이 등장했다. 촉수와 더듬이가 달린 거대한 파인애플을 닮은 마다가스카르의 식인 나무는 1874년 '뉴욕월드'에 기사가 실리며 알려지기 시작했다. 1869년 10월 16일, 미국의 한 마을에서 발견된 키가 3m나 되는 남자의 화석은 '카디프의 거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미국 전역에서 순회 전시됐지만 이는 11개월 전 이 화석을 땅에 묻은 담배판매상 조지 헐의 사기극이었다.

1939년 출간된 책을 통해 화제가 됐던 뉴기니의 공룡 로우의 상상도(최재훈 그림). 〈갈매나무 제공〉

저자는 "우리가 황당한 괴물 이야기를 얼마나 굳게 믿을 수 있는지, 한번 뿌리내린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역사를 수놓은 각종 소문과 거짓말 뒤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인지 하나라도 더 많이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분명 세상과 우리 자신을 한층 똑바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책을 읽다보면 더욱 궁금해지는 괴물의 모습을 상상력을 발휘해 구현해 낸 이는 일러스트레이터 최재훈이다. BTS RM의 'Fover Rain' 뮤직 비디오 연출자이자 영화 '파묘'의 콘셉트아티스트였던 그가 "지금 어딘가 살아 숨 쉬고 있을 듯한 괴물들의 생생한 모습을 그리면서도,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괴물의 환상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린 흑백 삽화는 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갈매나무·3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숙명 같은 삶을 딛고 전설이 된 15명의 여성 작가들

높고 쓸쓸한 여성 작가들

김대유 지음

박완서, 미우라 아야코, 허난설헌,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 제인 오스틴, 버지니아 울프, 박경리, 시오노 나나미, 시몬느 드 보부아르, 한강 등….

위에 열거한 이들은 국내외를 넘어 내로라하는 여성 작가들이다. 저마다 개성적인 문체와 독특한 작품세계를 열었던 독보적인 작가들이다. 각 개인마다 활동했던 시대는 다르지만 당대의 부조리와 불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개성적인 작품세계를 일궈나갔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저마다 남다른 예술에 대한 열정과 관점으로 문학을 펼쳤던 여성 작가들을 조명한 책이 발간됐다. '높고 쓸쓸한 여성 작가들'에 수록된 15명의 여성 작가들은 당대 시대정신을 작품으로 구현했던 문인들이다. '행복한 삶의 온도' 등을 펴냈던 서영대 김대유 교수가 저자로, 그동안 여성과 청소년 교육 분야의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책은 모두 15개장으로 구성됐다. 한명의 작가 당 한 장씩 배분돼 있으며, 각각의 글은 에세이 형식이다.

허난설헌은 27세에 요절한 천재 시인이었다.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녀는 비판적 저항의 글을 썼던 조선을 대표하는 여류 문인이다. 허난설헌은 8세에 "저 높은 하늘에 신선이 살고 있고 그 신선과 함께 노닐며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의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이라는 제목의 긴 시를 창작해 일찍부터 시적 재능을 보였다.

시와 그림 모두 비범한 재주를 가졌지만 그녀는 열다섯 살에 안동김씨 가문에 시집을 가면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해야 했다. 남편은 술과 여색을 탐해 집안일도 소홀했고 문과에도 급제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허난설헌 탓으로 돌렸다. 결국 허난설헌은 스물일곱 젊은 나이에 스트레스와 상실감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러나 그녀의 시는 당시 조선의 주류문학인 송나라 문학을 넘어 당나라 문학을 수용하는 국제 조류를 반영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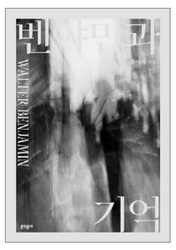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은 지난 2013년 교보문고에 따르면 "2003년 이후 한국의 독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고전문학 작품"으로 선정됐다. 가난하고 이름없는 소설가인 제인 소트틴은 몸이 허약했다. 결핵으로 자주 아팠고 평생 영양실조에 시달렸다. 41세에 자가면역 질환인 애디슨병으로 사망했으며 윈체스터 대성당에 안장됐다.

이밖에 책에는 페미니즘으로 여성문학을 일궜던 버지니아 울프, 여성주의적 실존주의를 추구했던 시몬느 드 보부아르, 로마사를 이야기로 풀어낸 '로마인 이야기'의 시오노 나나미, 2024년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의 작가 한강도 만난다.

한편 저자는 "15명 여성 작가의 이야기를 담는 일은 달빛에 바랜 진실을 찾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연한다.

〈시간여행·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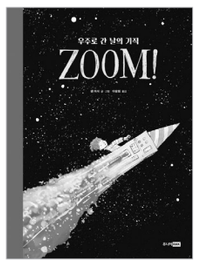
▲페스트(알베르 카뮈 지음, 이정서 옮김)=알베르 카뮈의 '페스트'를 완역본으로 새롭게 만난다. 카뮈 번역본의 오역을 지적하며 화제를 모았던 번역가 이정서가 문장 구조를 철저히 복원하고, 그만의 번역 철학을 보여준다. 'La Peste'를 '역병'으로 'peste'를 '전염병'으로 구분하며 카뮈의 의도를 최대한 살려내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기존 번역본이 놓쳤던 카뮈의 숨결을 따라 인류에 대한 철학을 깊이있게 접할 수 있다. 〈새움·1만3800원〉

▲벤야민과 기억(윤미애 지음)="과거를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원래 어떠했는가'를 인식하는 일이 아니라, 위험의 순간에 섬광처럼 스치는 어떤 기억을 붙잡는다는 것을 뜻한다" 20세기 가장 중요한 비평가 발터 벤야민을 독문학자인 저자가 탐구한 연구서. 벤야민의 '기억' 개념을 중심으로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 탐구한다. 〈문학동네·2만원〉

▲마지막엔 누룽지나 오차즈케로(후카자와 우시오 지음, 김현숙 옮김)=재일교포인 저자가 음식과 가족, 정체성을 중심으로 풀어낸 에세이.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김치를 좋아해야지!", "일본에서 살면 스시지!" 등 고정관념에 시달리는 성장기를 지나온 저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준다. 김치, 스시, 커피, 컵라면 등 음식이라는 매개로 삶의 단면을 섬세하게 담았다. 〈공명·1만8800원〉

▲언어가 세계를 감각하는 법(케일럽 에버렛 지음, 노승영 옮김)='고소하다'와 '달콤하다', '초록색'과 '파란색' 등 수많은 언어는 인간의 본성을 내포하고 있다. 언어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저자가 아마존과 태평양 지역 현장 연구를 바탕으로 7000여개의 언어를 깊이있게 분석했다. 언어가 문화, 개인의 사고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인문서다. 〈위즈덤하우스·2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ZOOM! 우주로 간 날의 기적(샘 어셔 지음, 이상희 옮김)=아이와 할아버지가 함께 만든 우주선을 타고 떠나는 상상의 여행. 현실과 환상이 맞닿는 순간, 이야기는 무한한 우주의 깊이만큼이나 넓은 상상력의 세계로 어린이들을 안내한다. 아름다운 수채화 그림과 함께 펼쳐지는 신비한 우주의 풍경과, 할아버지와 떠나는 따뜻한 모험이 세대를 잇는 교감을 보여준다. 〈주니어RHK·1만5000원〉

▲어느 날 미운 친구가 사라졌다(유순희 지음, 이수영 그림)="쟤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어느날 바람이 현실이 돼버렸다. 멸종한 도도새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친구를 되찾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 필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용기를 내는 것. 친구를 찾아 나선 여정 속에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작가는 아이들에게 열린 마음의 힘을 따뜻하게 전한다. 〈꿈터·1만2000원〉

▲내 용돈 빼고 다 올랐어(하리라 지음, 지문 그림)=내 용돈은 그대로인데 과자값, 떡볶이값, 심지어 온라인 게임 비용까지 모두 올랐다! 고물가의 파도는 아이들의 소소한 일상도 덮치고 말았다. 기자가 꿈인 채이와 함께 가격 상승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부모님과 동네 어른들과의 대화를 통해 '물가', '수요와 공급', '인플레이션' 등 경제개념을 쉽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다. 〈꿈꾸는섬·1만4000원〉